

‘코로나 공포’ 건강검진도 미룬다... “병원 사람 많아 찝찝”

“집 밖 나가는 것도 무서운데 병원은 더 걱정”

“연말이면 병원 혼잡... 일단 미루고 상황 보면서”

충남서 건강검진 받은 후 발열→확진 판정 사례

정부, 2020년 건강검진기간 내년 6월까지 연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보통 연말에 했던 건강검진마저 꺼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분위기다.

회사원 김모(39)씨는 21일 뉴시에 “지방 공무원이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뉴스를 보고 즉시 취소했다”며 “회사에 ‘건강검진 받으러 갔다가 걸리면 책임 질거냐고 물었더니 확답을 못하더라. 그래서 취소했다’고 말했다.

최근 건강검진을 받은 뒤 발열 증세가 나타났던 충남 당진시의회 공무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전모(30)씨도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는 병원

에 사람이 늘어서 내년으로 미룰까 한다”며 “지금 집 밖에 나가는 것도 무서운 상황이다. 건강검진이 내년 6월까지 연장됐다고 해서 내년엔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봉모(58)씨 역시 마찬가지로 이유를 건강검진을 내년으로 미루기로 했다.

봉씨는 “항상 연말이면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 병원이 혼잡하고 의료진도 힘든데 코로나19로 상황이 더 안 좋을 것 같다”며 “일단 내년으로 미루고 코로나19 상황을 보면서 정확한 날짜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직장인 조모(36)씨의 경우 사정상 건강검진을 올해 하기로 했지만 내시경 검사는 하지 않기로 했다.

조씨는 “코로나19가 걱정돼서 입벌리고 받는 내시경은 빼고 검진을 받으려고 한다”며 “최대한 사람들이 없는 시간과 요일에 가려고 생각 중”이라고 했다.

인터넷에서도 건강검진을 연기하려 한다는 내용의 글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한 지역사회 커뮤니티 회원은 “코로나19 때문에 미루다 건강검진을 잡아줬는데 이렇게 (코로나19 확산 상황) 심해져서 걱정”이라고 올렸다.

다른 커뮤니티의 회원은 “직장에서 받고 해서 받긴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이라며 “사람 많은 병원에 가는 것도 찝찝하고 환기도 안되는 곳에서 몇 시간을 있어야 하지는 않느냐. 검사 받는다고 마스크도 벗어야 할텐데 걱정”이라고 했다.

한 맘카페 회원은 “코로나19 때문에 건강검진이 내년 6월까지 연장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지금 육아휴직 중이어서 병원에 가서 받기가 우려된다”고 썼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최근 2020년 국가건강검진기간을 내년 6월까지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생활수칙을 준수해 검진기관 이용



을 자제하고 건강검진을 연기해 온 국민들의 건강검진 수검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코로나 확진자는 926명을 기록했다.

신규 확진자는 지난 16일 1078명, 17일 1014명, 18일 1064명, 19일 1053명, 20일 1097명 등 5일 연속 1000명대로 발생하다가 이날

900명대로 내려왔다.

단, 주말인 지난 20일 하루 의심환자로 신고돼 방역당국이 실시한 코로나19 진단검사는 3만767건으로, 5만6450건에 달했던 금요일(18일)보다 2만6000여건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봉우기자

광주기독병원 의료진·환자 5명 감염...긴급 위험도 평가

확진자 나온 서5병동 자체 동일집단 격리



21일 오전 광주 남구 광주기독병원 서5병동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의료진 등 종사자 전수검사가 실시되고 있다.

광주기독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 등 5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됐다.

병원 측은 확진자가 다수 나온 병동은 자체 동일집단(코호트) 격리 조치했으며 병원 전체 시설 확대 여부는 방역당국과 논의 중이다.

21일 광주시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늦게 병원 서5병동의 의료진 1명(광주876번)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방역당국은 역학조사를 통해 5병동의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 등 109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으며 이날 오전 환자 3명과 동료 의료진 1명의 추가 감염 사실을 확인했다.

광주876번은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 스

로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았다.

광주876번은 지난 17~19일 병원에서 근무했으며 감염경로는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측은 우선 감염자가 나온 서5병동은 자체 동일집단(코호트) 격리 조치했으며 입원환자 30명과 의료진에 대해서는 퇴원, 전원 조치하고 있다.

또 의료진과 종사자 등 800여명에 대해서는 주차장 인근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방역당국과 병원 측은 원내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긴급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뒤 동일집단 격리 조치를 병원 전체로 확대할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서5병동은 ‘간호감병동합서비스’ 병동으로 운영됐으며 의료진과 환자만 출입이 가능하며 보호자 등 외부인은 출입이 제한되는 공간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의료진에 이어 환자도 잇따라 감염돼 전 직원 전수검사를 하고 있다”며 “확진자가 다수 나온 병동은 이동이 제한된 공간이어서 다른 병동으로 이동은 없는 것 같다”며 “심층 역학조사를 통해 병원 전체 동일집단 격리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선욱기자

김영록 “연말연시 모임 취소·이동 자제” 호소

도내 숙박업소 예약률 90%...내년 1월 3일까지 특별방역 기간

김영록 전남지사가 21일 연말연시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모임 취소와 방역수칙 준수를 호소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탄절과 연말연시 연휴가 이어져 소규모 모임과 종교행사에 따른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며 “22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2주간을 특별방역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지사는 “전남은 11월 한 달 때 1일 확진자가 27명까지 치솟았으나 최근 3.9명 수준으로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인구 10만명당 발생비율도 26.7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며 “지금의 안정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민 여러분의 방역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일부 젊은층과 임시를 끝낸 수험생을 중심으로 펜션, 파티룸 등의 소규모 모임이 많다고 하고, 도 내 주요 숙박업소도 연말연시 예약률이 90%를 웃돌고 있어 대단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다”며 “모두의 건강을 위해 사적

모임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는 “수도권 등 타 지역을 방문하지 말고, 전남을 방문한 외지인과도 접촉을 하지 않아야 한다”며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를 착용하고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는 사적 모임을 금지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 지사는 “종교인도 성탄절 예배 등 종교행사를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모임과 식사도 금지해 주기 바란다”며 “전남도는 빠르고 광범위한 진단검사를 위해 추가군 순천과 목포에 임시 선별검사소를 설치하겠다. 내년 1월10일까지 모든 선별진료소 운영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전남도는 시·군, 경찰청, 교육청과 합동으로 성탄절 전후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해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응할 방침이다”며 “코로나 상황으로 모두 지치고 힘든 시기이지만 지금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김정환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